

신라 사찰의 분포와 왕경의 형성

The Formation of the Capital of Silla through Buddhist Temple Distributions

저자 (Authors)	김동하 Kim, Dong-ha
출처 (Source)	신라문화 57 , 2020.12, 63-92 (30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7 , 2020.12, 63-92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881
APA Style	김동하 (2020). 신라 사찰의 분포와 왕경의 형성. 신라문화, 57, 63-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6 13: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사찰의 분포와 왕경의 형성

김 동 하*

- I. 머리말
- II. 왕경의 사찰 현황
- III. 시기별 사찰 분포와 입지적 특징
- IV. 사찰 분포로 본 왕경의 형성과정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라 왕경 사찰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특히 불탑과 불상, 석물 등이 잔존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시기별 사찰의 분포 변화와 입지적 특징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사찰 조성에 따른 왕경의 형성 등을 고찰하여 신라 왕경 내 사찰 분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신라 왕경은 내외를 구분하는 외성이 없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라 당대에는 자연 지형이나 환경 등이 그 구분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고, 아울러 사찰, 왕릉, 산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등도 그 경계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신라 왕경의 사찰은 신라 중고기 서천 주변에서 시작해, 6세기 중엽 월성 주변, 7세기 후반 낭산 일원과 토함산 북쪽, 8세기 중엽 형제산, 토함산 남쪽, 8세기 후반 이후에는 오늘날 경주시 외곽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찰의 분포양상과 입지는 신라 왕경의 형성 과정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신라, 왕경, 사찰, 분포, 입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 본 논문은 2020년 8월 2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신라는 6세기 전반 불교를 공인한 후 왕경 내 크고 작은 사찰을 건립하고 塔像을 조성했다.¹⁾ 통일 이전, 신라는 興輪寺, 永興寺, 皇龍寺, 芬皇寺와 같은 대규모 사찰을 왕경 중심부에 조성했고, 통일 후에는 왕경 전역에 四天王寺, 感恩寺, 皇福寺, 佛國寺, 崇福寺와 같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그동안 신라 왕경 사찰 연구는 관련 연구자에 의해 꾸준히 있어 왔다. 먼저 일제강점기 모로가 히데오나 오사카 긴타로와 같은 경주지역 거주자들은 경주 전역에 분포하는 寺址를 직접 답사하며 절터의 寺名을 비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복 이후에도 경주지역 절터와 관련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박방룡, 이인철, 김복순, 다나카 토시아키 등은 경주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절터의 현황, 분포, 체계 등에 대해 치밀하게 다루었다. 신창수, 이근직, 양정석, 여호규, 전덕재 등은 신라 왕경 개발·형성과 사찰 조영과의 관계를 주목했다. 채상식, 이영호, 윤선태 등은 주로 성전사원의 위치, 기능 및 성격에 대해 고찰했다. 이상의 연구는 신라 왕경 내 사찰 분포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본고는 기왕 연구를 기반으로 경주지역 신라 사찰의 분포상과 그 입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라 왕경 사찰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특히 탑상이나 석물 등이 잔존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시기별 사찰의 분포 변화와 입지적 특징 등을 함께 검토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 조성에 따른 왕경의 형성 등을 고찰하여 신라 왕경 내 사찰 분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왕경의 사찰 현황

경주지역에 분포한 사찰 혹은 寺址의 수는 보고서 및 관련 연구자마다 차이가 난다. 먼저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에서 관리하던 대장을 검토한 결과 180여건의 절터, 불상, 불탑(배탑) 등이 보고되었다.²⁾ 이 중에는 지표에 초석이나 축대 등이 남아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절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유적도 상당수 포함되며, 아울러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된 탑상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광복 이후 국내 학계에서도 신라 왕경 내 절터의 수를 비정했는데, 먼저 박방룡

1) 왕경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왕경의 최종 범위를 오늘날 경주시 행정구역 내로 설정하여 검토했음을 밝혀둔다.

2) 김동하,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불교유적조사와 경주고적보존회의 『慶州古蹟及遺物調書』,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217~220([표 1] 참조).

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경주유적지도』를 참고하여 203개소의 사찰 및 寺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자료, 금석문 등을 검토해 97개소의 사찰명을 확인했으며, 이 중에서 사찰명과 위치가 일치되는 장소를 51개소로 파악했다.³⁾ 뿐만 아니라, 도성 내 위치한 사찰을 삼국시대와 통일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분포양상을 파악하여 도성 내 사찰 조영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김복순은 기왕에 보고된 이인철, 박방룡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도성 내 분포하던 105개의 사찰명을 도출했고, 그 중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찰은 53개소로 정리하였다.⁴⁾ 이 글은 성전사원과 7층 가람의 위치와 형성배경 등을 살펴 신라 佛國土 사상을 고찰한 것이 특징이다. 이근직은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이라는 주제로 경주분지와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사찰에 대해 검토하고,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찰 조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⁵⁾ 특히 왕경의 확장에 따른 사찰의 위치 변화를 검토한 것은 왕경 사찰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남아 있는 물질자료인 塔像을 포함한 사찰의 현황과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1. 각종 문헌자료(금석문 포함)에서 확인되는 왕경 사찰

기왕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왕경 내 존재했던 신라 사찰을 살펴보면 대략 106개 정도가 파악된다. 이 사찰명은 문헌자료, 금석문, 각종 고고미술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앞서 소개한 박방룡, 이인철, 김복순 등의 연구결과를 정리·취합한 것이다.

- 1.감산사, 2.감은사, 3.경지사, 4.고선사, 5.곡사, 6.곤원사, 7.구원사, 8.굴불사, 9.금강사, 10.금곡사, 11.금광사, 12.기림사, 13.기원사, 14.남간사, 15.남산(지)사, 16.남향사, 17.담암사, 18.대곡사, 19.도량사, 20.도림사, 21.도중사, 22.돌백사, 23.동천사, 24.만선도량, 25.망덕사, 26.문수사, 27.모지사, 28.무장사, 29.미탄사, 30.민장사, 31.밀곡사, 32.반량사, 33.백률사, 34.법류사, 35.법림사, 36.벽사, 37.보리사, 38.보문사, 39.봉덕사, 40.봉성사, 41.봉은사, 42.부개사, 43.분황사, 44.불국사, 45.불무사, 46.사자사, 47.사천왕사, 48.삼량사, 49.생의사, 50.석가사, 51.석불사(석굴암), 52.석장사, 53.선방사, 54.송화방, 55.송복사, 56.신선사, 57.신원사, 58.신인사, 59.실제사, 60.안계사, 61.안홍사, 62.양관사, 63.양존사, 64.양피사, 65.애공사, 66.엄장사, 67.영경사, 68.영묘사, 69.영흥사, 70.왕망사, 71.용장사, 72.원녕사, 73.원연사, 74.원월사, 75.유덕사, 76.이거사, 77.인용사, 78.임천사, 79.웅수사, 80.자추사, 81.장수사,

3) 박방룡, 「新羅 王京의 寺刹造營」,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3, 1999, pp.117~119.

4)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7, 2006, pp.107~115.

5) 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동악미술사학』 11, 2010, pp.105~120.

6) 본고에서는 남산의 불적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남산 불적과 관련해서는 별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82.정혜사, 83.중생사, 84.지중사, 85.창림사, 86.천관사, 87.천룡사, 88.천엄사, 89.천은사, 90.천주사, 91.청룡(지)사, 92.취선사, 93.피리사(염불사), 94.혈사, 95.혜숙사, 96.호원사, 97.홍효사, 98.황룡사, 99.황복사, 100.황성사, 101.홍륜사, 102.갑산사(기와), 103.만정지사(기와), 104.사제사(기와), 105.인정지사(기와), 106.동사(기와)

2. 경주지역 분포 절터(경주 남산 불적 일부 포함)/79개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경주유적분포지도>에서는 경주지역의 寺址는 약 200개소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하였다.⁷⁾ 2012년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경주지역 분포 절터는 경주시내 131개소, 남산 154개소로 파악된다.⁸⁾ 물론 조사된 유적 중에는 신라 사찰로 단정할 수 없는 곳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고대 사찰에서 중심이 되는 塔像이 잔존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절터를 확인하고, 기타 발굴 등을 통해 신라시대 사찰로 인정되는 유적 등을 포함하였다.⁹⁾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1) 사찰명이 확인된 절터(27개소)

먼저 사찰명이 확인된 절터는 27개소이다.¹⁰⁾ 이 중 상당수가 발굴을 통해 사찰 관련 유구·유물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절터들은 각종 문헌자료, 물질자료 등을 통해 사찰명이 비정된 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갑산사(외동), 2. 감은사(양북), 3. 고선사(덕동), 4.곡사(원성왕릉), 5. 굴불사(소금강산), 6.무장사(암곡), 7. 미탄사(인왕동), 8. 망덕사(배반동), 9.백률사(소금강산), 10. 분황사(구황동), 11. 불국사(토함산), 12. 사천왕사(배반동), 13.삼량사(성건동), 14. 석장사(석장동), 15. 승복사(외동), 16. 영묘사(사정동), 17.용장사(남산), 18. 천룡사(남산), 19. 홍륜사(사정동), 20. 갑산사(안강), 21. 황룡사(구황동), 22. 천관사(교동), 23. 이거사(도지동), 24. 원원사(외동), 25. 석불사(토함산), 26. 기림사(양북면) 27. 정혜사(안강읍) (* 진하게 표시한 유적은 시·발굴 조사가 진행된 곳임)

7) 박방룡, 앞의 논문, 1999, pp.126~127.

8)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대구·경북 경주시 사지 분포현황』, 2012, pp.79~500.

9) 경주 남산을 비롯해 산지에 입지한 불적은 대표유적 일부만 포함시켰다. 산지에 위치한 불적(마애불 등)의 경우 평지사찰과는 성격이 다른 수행처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주 왕경 내 분포했던 여러 사찰과 동일하게 놓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 숫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관련연구자 중에는 전)황복사지, 전)담엄사지, 전)창림사지, 전)호원사지 등과 같은 사찰의 위치를 인정하기도 한다.

2) 불탑이 남아 있는 절터(31개소)

경주지역 내 신라시대 석탑 혹은 탑재가 잔존하고 있는 유적은 31개소 정도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사찰명이 비정된 유적을 제외한 수치이다. 이 중에는 전)황복사, 전)창림사, 전)호원사, 전)염불사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찰명이 전해진 유적도 있지만 동일 사찰로 단정하기에는 결정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탑이 남아 있는 절터’로 분류하였다.

1. 전)황복사 삼층석탑(구황동), 2. 전)창림사 삼층석탑(탑동), 3. 전)창림사 동서석탑재(탑동), 4. 전)염불사 동서삼층석탑(남산동), 5. 전)호원사 석탑재(황성동), 6. 전)사자사 석탑재(배반동), 7. 전)담암사 석탑재, 8. 전)근원사 석탑재(탑동), 9. 전)북명사 석탑재(내남면), 10. 전)금곡사 석탑재(안강읍), 11. 나원리 오층석탑(현곡면), 12. 남사리 삼층석탑1(현곡면), 13. 남사리 삼층석탑2(현곡면), 14. 서악동 삼층석탑(서악동), 15. 용명리 삼층석탑(건천읍), 16. 마석산 죽곡 삼층석탑(내남면), 17. 마동 삼층석탑(마동), 18. 효현동 삼층석탑(효현동), 19. 남산리 동서삼층석탑(남산동), 20. 천군동 동서삼층석탑(천군동), 21.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양북면), 22. 황룡사 서편 동서석탑재(구황동), 23. 입실리 동서석탑재(외동읍), 24. 인왕동 동서석탑재(인왕동), 25. 황룡곡 동서삼층석탑재(덕동), 26. 하구리 석탑재(현곡면), 27. 피마곡 석탑재(천군동), 28. 동천동 석탑재(동천동), 29. 구황동 모전석탑지(구황동), 30. 전)만정지사 목탑지(구황동), 31. 옥다리돌 목탑지(배반동)

3) 불상이 남아 있는 절터(18개소)

불상이 남아 있는 절터는 18개소 정도가 확인된다. 전)남향사 석불입상의 경우 사찰명이 전해지기는 하나 해당사찰로 단정할 수 없어 역시 ‘불상이 남아 있는 절터’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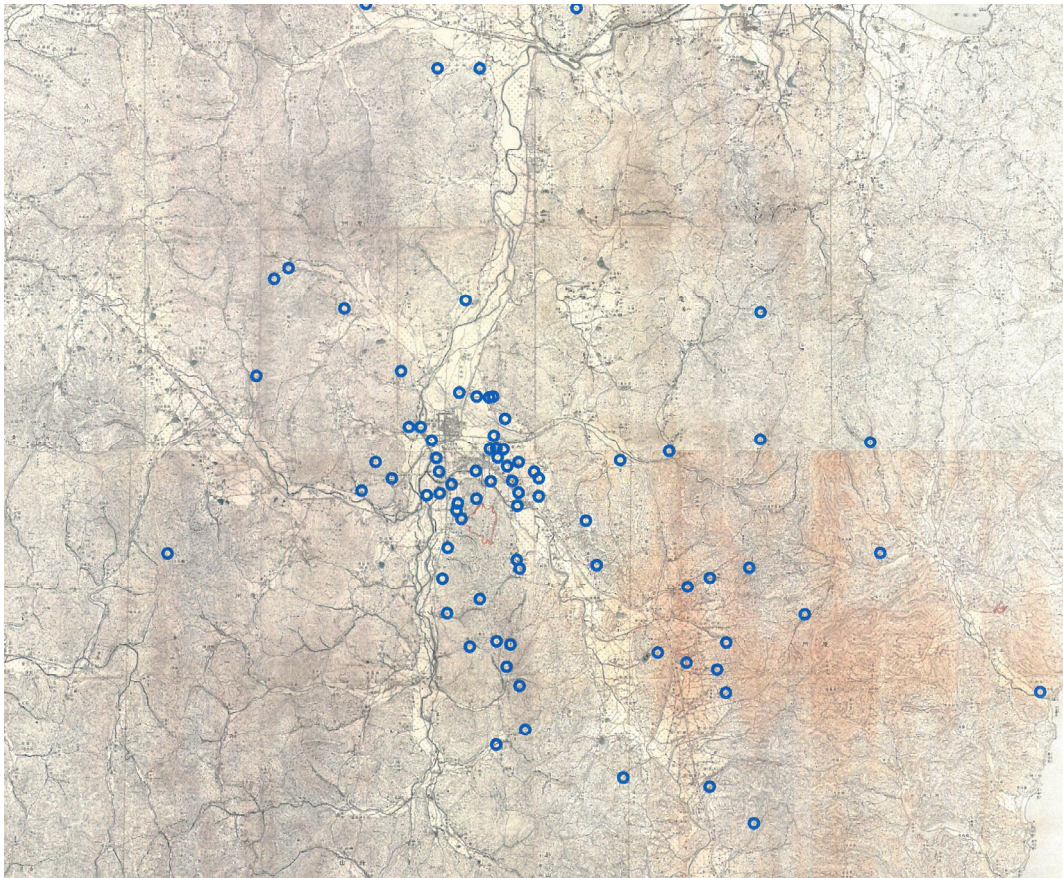
1. 전)남향사 석불입상(노서동), 2. 안계리 석불좌상(안강), 3. 충효동 석조반가사유상(충효동), 4. 서악동 마애삼존불입상(서악동), 5. 단석산 마애불상군(건천읍), 6. 장창곡 미륵삼존불상(남산), 7. 배리 석조삼존불입상(남산), 8. 능지탑 소조불좌상(배반동), 9. 입곡 석불입상(남산), 10. 용장계 법당곡(남산) 석불좌상, 11. 열암곡 석불좌상·마애불입상(남산), 12. 마석산 백운대 마애불입상(남산), 13. 칠불암 마애불상군(남산), 14. 영지 석불좌상(외동읍), 15. 활성리 석불입상(외동읍), 16. 냉천리 석불좌상(외동읍), 17. 골굴암 마애불좌상(양북면), 18. 근계리 석불입상(안강읍)

4) 기타(3개소)

기타는 모두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으로 전)남간사지,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동사지, 보문동 연

화문 당간지주 등 3개소이다. 전)남간사지는 경주시 탑동 내 남간마을에 위치한다. 현재 절터로 추정되는 곳에는 당간지주가 남아 있으며, 주변 민가에는 절터에서 옮겨진 각종 석물 등이 잔존해 있다. 지금도 마을이름을 ‘남간마을’로 부르고 있어 이 일대를 ‘南澗寺’로 비정할 수 있겠으나, 『三國遺事』에 기록된 ‘南澗寺’로 단정하기에는 결정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¹¹⁾

[그림 1] 경주지역 신라 사찰 분포 현황(1925년 지도)



경주시 보문동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라시대 당간지주가 두 개가 잔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주변에 두 개 이상의 사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동네이름이 ‘보문동’으로 부르고 있어, 주변으로 ‘普門寺’가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普門寺’라는 寺名이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공에서 출토된 ‘仲和三年’(883)명 금동사리기 명문에 기록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수습된 기와

11) 『三國遺事』에는 남산 서쪽 은천동의 어귀에 남간사가 있다고 했다. 은천동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중 ‘普門寺’명 기와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존재했던 사찰은 분명하다. 다만 그 ‘普門寺’가 현재 ‘보문동사지’로 알려진 곳인지, 연화문 당간지주와 석탑재가 있는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普門寺’의 위치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¹²⁾

1.전)남간사(탑동), 2.보문동사지(보문동), 3.연화문 당간지주(보문동)

Ⅲ. 시기별 사찰 분포와 입지적 특징

앞서 살펴본 79개소의 절터에 대한 시기별 분포상과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시기는 신라 중고기(법흥왕~진덕여왕), 중대(무열왕~혜공왕), 하대(선덕왕~경순왕)로 구분할 수 있지만, 잔존하는 塔像의 양식편년 등을 고려해 제1기는 삼국시대(6~7세기 중엽), 제2기는 7세기 후반~8세기 중엽(불국사, 석굴암 조성),¹³⁾ 제3기는 8세기 후반~10세기까지로 분류하였다.¹⁴⁾

1. 1기 : 6~7세기 중엽

신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사료에 따르면 6세기 이전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¹⁵⁾ 다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고 왕경 중심에 사찰이 조성된 시기는 6세기 전반 법흥왕 때이다.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544년에 완공되고,¹⁶⁾ 뒤이어 황룡사, 분황사와 같은 대사찰이 왕경에 조성되었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사찰의 위치를 검토하면 주로 두 지역에서 사찰이 밀집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천 주변에 분포한 사찰 일군이 있으며, 월성 주변에 분포한 사찰이 있다(그림 2). 본고에서는 이 두 지역에 분포한 사찰을 중심으로 각각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12) 두 유적간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문사’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3) 경덕왕대 조성된 불국사, 석굴암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나 탑파사 등에서 기준자료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여러 탑상들을 불국사·석굴암 조성 전과 후로 구분하였다.

14) 탑상의 편년은 필자가 특별히 고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편년을 제시하였다.

15) 『三國遺事』卷3, 興法3, 阿道基羅, “道稟教至雞林寓止王城西里今嚴莊寺于時末羅王即位二年癸未也”

16) 『三國史記』卷4, 眞興王 5년, “春二月興輪寺成”

[그림 2] 신라 중고기 사찰 분포현황(경주분지)



1) 서천 동안 사찰

서천 동안에는 신라 최초의 사찰인 홍륜사와¹⁷⁾ 삼랑사,¹⁸⁾ 영묘사가¹⁹⁾ 분포하고 현재 경주시의 버스터미널 북쪽으로 전)남향사지 석조불입상 등이 위치한다. 물론 이외에도 각종 사료를 통해 서천과 멀지 않은 곳에 영흥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17) 이근직, 「신라 홍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2002, pp.79~97.

18) 서라벌문화재연구원,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pp.16~24.

19)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사정동 284-10번지 홍륜사 묘사채 건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2012.

20) 홍륜사와 영묘사 사이의 서천변에서 가공석재들이 수습된 바 있는데, 그곳을 영흥사로 추정하는 보고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14, 1981, p.286 참조).

서천 동안에 남북으로 조성된 사찰과 관련해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대중국 교통로로서의 의미를 주목한 바 있다. 특히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월성 서편에 건립된 배경에 중국 낙양 후한 도성 서편의 백마사가 대서역루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점을 신라에서 충분히 의식해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의 위치를 선정했다는 견해이다.²¹⁾ 물론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흥륜사의 위치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三國史記』 진흥왕 10년(549) 기사에서는 양나라 유학승 覺德이 사신과 함께 귀국하면서 불사리를 가져왔는데 그때 왕이 백관으로 하여금 흥륜사 앞길에서 맞이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²²⁾ 흥덕왕 2년(827)에도 역시 유학승이자 고구려의 승려였던 丘德이 불경 등을 갖고 입국했을 때 왕이 친히 흥륜사 앞길에서 여러 사찰의 승려와 함께 맞이하였다.²³⁾ 한편 문무왕 14년(674)에는 영묘사 앞길에서 열병을 하고, 아찬 설수진의 육진병법을 왕이 관람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²⁴⁾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흥륜사나 영묘사의 앞길이 단순한 교통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왕경 내 중요한 집결광장으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륜사나 영묘사의 위치가 왜 그곳이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²⁶⁾

경주 분지는 하천의 범람이나 용천에 따른 습지 발생으로 인해 생활공간으로서 완벽히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라는 마립간기 경주 분지 내에 다수의 고분을 조성했고, 이후에는 방리 계획에 따른 도시를 건설했다. 이러한 지리적인 악조건 상황에서도 고분이나 사찰, 왕궁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조성했다면 정치·역사적 배경만큼이나 당시 경주 분지의 지형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²⁷⁾ 신라 왕경 도시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북천의 범람이었다는 주장이 있다.²⁸⁾ 이와는 달리 북천의 범람보다는 경주 분지 곳곳에 생성된 용천이나 구하도에 따른 습지 형성 등을 주목하기도 한다.²⁹⁾ 서로 다른 견해이지만, 두 주장 모두 경주 분지의 지형과 물의 관계를 지적한 것은 동일하다. 최근 경주 분지의 고지형과 5~6세기 적석목곽묘의 분포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즉, 경주 분지 내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선상지의 선양 말단부나 선단부에 해당하며, 용천천이 지나는 곳이나 습지가 형성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것으로

21) 이근직, 앞의 논문, 2010, pp.109~111.

2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0년, “梁遣使與入學僧覺德逸佛舍利王使百官奉迎興輪寺前路”

23) 『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 “入學僧高麗釋丘德費佛經若干函來王與諸寺僧徒出迎于興輪寺前路”

2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幸靈廟寺前路閱兵觀阿浪薛秀眞六陣兵法”

25) 최근 발굴을 통해 황룡사 남편에서 대규모 광장유적이 확인되었다. 황룡사, 흥륜사, 영묘사와 같은 왕경 중심부의 대규모 국가사찰 주변에는 대형도로나 광장 등이 구축되어 있어 당시 다양한 의식이나 행사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26) 6세기 전후하여 하천 변에 안전하고 튼튼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찰이 입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전덕재, 「신라 왕경의 공간구성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7, 2005, p.185).

27) 김창호, 「신라 흥륜사의 가람배치 문제」, 『신라문화』 20, 2002, pp.140~141.

28) 이기봉, 「중고기 신라 왕경에서 불교의 공인과 도시의 변화」, 『신라문화』 20, 2002, pp.260~263 ; 강봉원,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신라문화』 25, 2005, pp.337~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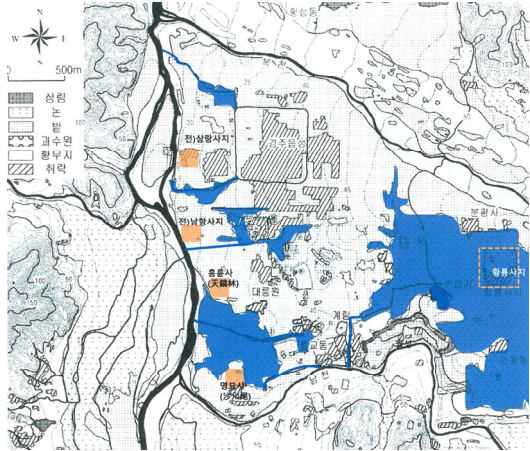
29) 윤순옥·황상일, 「경주 및 천북 지역의 선상지 지형발달」, 『대한지리학회지』 39-1, 2004, pp.56~69.

파악했다. 그리고 저지대 일원은 고분군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했고, 대다수의 고분은 용천천과 습지를 완벽히 피해 조성한 것으로 고찰하였다.³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면 오늘날 경주 분지, 즉 신라 왕경의 중심부는 물을 피하거나 혹은 물을 다루어서[治水와 埋立] 도시가 형성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경주 분지 내 고지형은 서천 동안에 위치한 삼국시대 사찰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지도나 1960년대 경주 분지의 항공사진 등을 검토해 보면 습지는 대부분 저지대에 형성된 논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흥륜사지(현 경주공고) 남쪽과 영묘사지(현 흥륜사) 북쪽 사이는 용천천이 흐르고, 그 주변은 광범위한 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5).

[그림 3] 경주 분지 토지이용과 사찰 위치(2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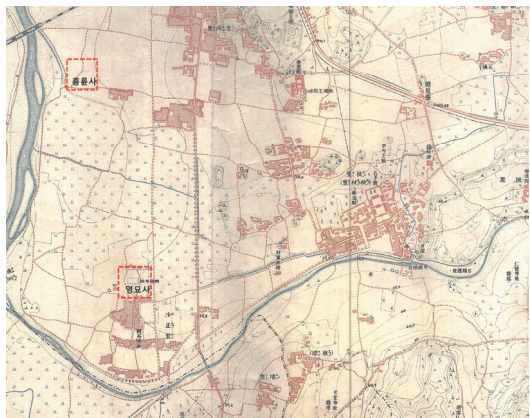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알천유역 범람원의 고지형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연구』, [그림 29], 필자 재편집



[그림 4] 경주 분지 내 습지 현황과 사찰 위치



[그림 5] 흥륜사와 영묘사 위치(1933년 지도)



역시 동일한 사진이나 지도를 통해 보면 서천 서안에 위치한 전남향사지 석조불입상과 삼랑사지 주변도 용천천과 습지를 피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주 분지 내에 위치한 중고기 사찰은 대체적으로 평지에 조성된 것으로만 이해하였다. 그래서 주로 고대 사찰 연구에서

30) 심현철, 「경주 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 고분의 입지」, 『문화재』 51-4, 2018, pp.245~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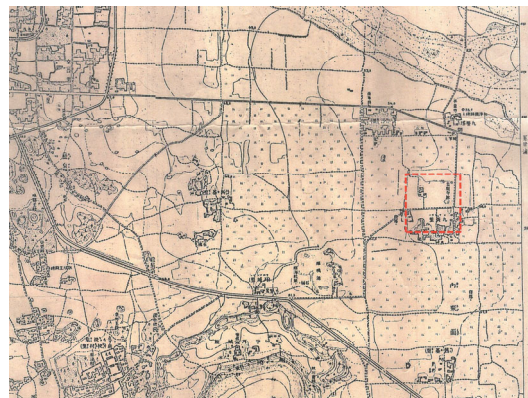
는 ‘평지사찰’과 ‘산지사찰’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신라 사찰의 입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신라 왕경 중심부(오늘날 경주 분지 내)의 고지형을 고려한다면 서천 동안에 분포하는 평지사찰은 용천천이나 습지가 있는 저지대를 피해 微高地나 낮은 구릉지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³¹⁾ 이러한 현상은 마립간기 경주 분지의 고분이 용천천이나 습지를 완벽히 피해 입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고기 서천 서안에 위치했던 사찰의 입지와 분포양상은 경주분지 내 습지나 저지대를 피해 비교적 높은 곳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왕경 내 중요시설의 입지가 당시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2) 월성 주변 사찰

앞서 살펴본 사찰과는 달리 황룡사, 천주사, 분황사는 월성 주변에 조성된 삼국시대 사찰이다. 흥미롭게도 서천 동안과 월성 주변의 입지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서천 동안의 사찰은 습지나 용천천을 피해 건립되었다면, 월성 동편의 사찰은 치수와 습지 매립으로 물을 극복한 후 그 자리에 조성했다(그림 6). 6세기 이전까지 월성 동편 공간은 하천이 범람하거나 토지가 저습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장소였다. 이곳은 진흥왕대 이르러 하천의 치수작업과 습지 매립으로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을 것이다.³²⁾ 주지하듯이 황룡사는 습지를 매워 조성했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³³⁾ 황룡사가 조성됨과 거의 동시에 황룡사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진평왕 때 월성 주변에 천주사(579~632)를 건립했고, 선덕여왕 때 황룡사 북편에 분황사(634)를 창건하였다.

[그림 6] 황룡사 위치(1917년 지도)



습지를 매립해 사찰을 조성하는 것은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

31) 이와 관련해 서천 주변에 쌓인 퇴적물은 자연제방 형태로 남아 자생 혹은 인공조림에 의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이상준, 「신라왕경의 개발과정과 고고학적 경계」, 『신라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p.13 참조).

32) 김재홍,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 7, 가락국사적개발원, 1995, pp.66~67.

33) 문화재관리국,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pp.371~379.

은 공력을 투입해 황룡사를 굳이 그 자리에 건립하였다. 이것은 황룡사의 입지가 당시 왕경 전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룡사 건립의 원래 목적인 新宮 조성과 도시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그 장소를 고수해야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⁴⁾ 나아가 월성 동편의 습지 매립과 치수는 왕경의 도시 개발이 월성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황룡사 주변에는 계획된 방리제에 따라 생활거주지역이 형성되었고,³⁵⁾ 그 주변에는 구황동 모전석탑지(7세기 중·후반),³⁶⁾ 옥다리곡사지(7세기), 구황동 목탑지(7세기 중·후반) 등이 점차 들어선다.

2. 2기 : 7세기 후반 ~ 8세기 중엽

삼국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또 한 번의 정치·문화적 획기를 맞이하면서 왕경 내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한다. 679년에 실시한 궁궐의 수리와 동궁, 사천왕사의 창건은 왕경의 구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⁷⁾ 최근 황룡사 남편에서 확인된 대규모 광장시설과 동궁과 월지 유적 등은 모두 7세기 후반에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시 왕경 내 토목공사에 사용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월성을 중심으로 주변 중요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된 왕경의 여러 토목사업의 일면을 보여주는 물질자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월성, 동궁과 월지 주변, 황룡사지 주변, 나정 등 국가시설 등에서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³⁸⁾

제2기에 조성된 사찰의 분포를 검토해보면 역시 크게 두 지역군으로 구분된다. 낭산 주변에 들어선 사찰과 (동해안)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찰로 나눌 수 있다. 낭산 주변에 들어선 사찰은 사천왕사(679), 망덕사(685 혹은 692), 전)황복사(692), 능지탑지(7세기 후반), 보문동사지(7세기~8세기) 등이 있다(그림 7). (동해안)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찰로는 다시 두 경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천군동사지(동서석탑, 8세기 전반), 고선사(석탑, 7세기 후반), 기림사(목탑, 7세기 후반) 등이 이어지는 토함산 북쪽과 감산사(719), 불국사·석굴암(8세기 중엽), 장항리사지(동서석탑, 8세기 중엽) 등이 분포하는 토함산 남쪽으로 구분된다(그림 8). 물론 두 경로 모두 그 끝은 감은사(682)와 연결된다.

3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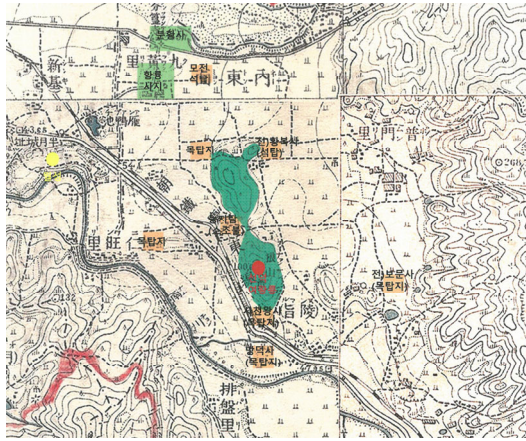
35) 경주문화재연구소, 『新羅王京 S1E1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2, pp.607~609.

36) 모전석탑지에 남아 있는 금강역사상 판석의 시기에 관해서는 김지현, 「경주 구황동 탑지의 석탑재 고찰」, 『불교미술사학』 20, 2015, p.8(각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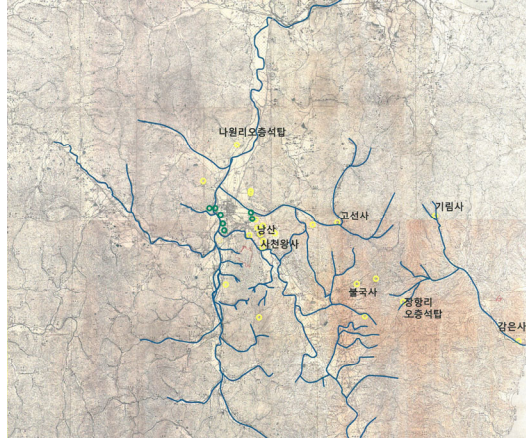
3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9년조.

38) 李東柱, 『新羅 統一期 王京의 構造와 運營』,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104~106. 다만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실제 만 7년간 발굴조사에서 동일기와 1점도 발굴되지 않았다. 기와에 알려진 사천왕사지 출토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일제강점기 수습 전해진 것으로 사천왕사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림 7] 낭산일원 중대 사찰 분포 현황



[그림 8] 신라 중대 사찰 분포(낭산, 토함산)



1) 낭산 주변 사찰

6세기 중엽 월성의 동북지역 일대가 매립되고, 이곳은 황룡사를 중심으로 왕경 도시 개발의 골격이 갖추어진다. 북천의 범람을 극복하고 습지 매립을 완료한 후 월성과 황룡사 일원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가 되었고, 이에 주거공간이 단계적으로 채워진다. 7세기 중엽에는 황룡사 동편과 낭산 북쪽으로 사찰이 건립되고 7세기 후반이 되면 낭산 전역에 많은 사찰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³⁹⁾ 낭산 주변에 사찰이 조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낭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도시의 확장이라는 두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낭산 주변에 왕릉과 사찰이 입지하게 된 이유는 먼저 중고기 이전부터 이어진 낭산이 가지는 ‘聖域’이라는 인식이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⁴⁰⁾ 그리고 불교 공인 이후에는 점차 불교의 수미산, 도리천과 같은 특별한 장소로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이러한 배경은 각종 문헌 기록이나 금석문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선덕여왕의 지기삼사 일화,⁴²⁾ 사천왕사의 창건 배경,⁴³⁾ 그리고 전)황복사 삼층석탑 사리기에 확인되는 ‘宗廟聖靈禪院伽藍’이라는 기록은 모두 낭산의 신성함 혹은 특별함과 결부시킬 수 있다.⁴⁴⁾

39) 이상준, 앞의 논문, 2019, p.17.

4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條 “是必仙靈降遊應是福地”

41) 주보돈, 「신라 狼山의 歷史性」, 『신라문화』 44, 2014, pp.17~25.

42) 『三國遺事』卷1, 紀異1, 善德王知機三事條.

43) 『三國遺事』卷2, 紀異2, 文武王法敏條.

44) 黃壽永, 『韓國金石文遺文』, 1976, pp.140~141; 鄭炳三,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pp.346~350.

낭산은 왕경 도시 계획에 있어서 동편과 남편으로 확장해가는 시작점이다. 다시 말해 신라 당대 왕경의 중심에서 오늘날 동해안과 울산만으로 오가는 경로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것이다.⁴⁵⁾ 이러한 추측은 현재 경주-울산 간 연결되는 7번 국도상에 위치하는 유적의 분포상이나 보문동과 토함산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의 위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 가능성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에는 전)황복사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사역 동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비롯해 그 동쪽에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과 그 내부 건물지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7세기 후반 왕경의 방리구획과 주거공간이 낭산 동편과 북편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⁶⁾

[그림 9] 사천왕사 출입시설(석교지, 보도 계단 등)



[그림 10] 황룡사지 전경



낭산 주변에 입지한 사찰을 포함해 신라 중대 사찰 중에는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는 사찰이 많이 있다. 낭산 주변으로는 사천왕사, 망덕사, 황복사, 능지탑, 전)만정사(구황동 목탑지) 등은 모두 유사한 입지에 조성되었다. 외곽으로 확대하면 감은사, 고선사, 나원리사지, 감산사 등도 구릉이나 낮은 야산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따라서 이 사찰들은 당시 도로나 왕경 내 일반 거주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 때문인지 신라 중대 사찰에서는 유독 그 출입구에 계단시설이 설치되는 예가 많다(그림 9). 기왕에 발굴된 사천왕사, 망덕사, 감은사, 황복사, 고선사, 불국사 등에서는 중심곽 혹은 중문과 연결되는 계단이나 오르막의 보도시설이 모두 확인되었다.⁴⁷⁾ 이러한 현상으로 본다면 중고기 습지를 피해 미고지에 건립된 사찰의 입지적 특징이 중대 사찰에서는 구릉 말단부에 위치함으로써 도로면이나 일반 거주 지역보다는 높은 곳에 건

45) 이상준 선생은 사천왕사 남쪽에서 확인된 배수로를 왕경 남동편의 내외 경계로 추정하였다(이상준, 2019, 앞의 논문, p.18 참조).

46)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 傳皇福寺址 I』,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pp.296~298.

47) 김동하,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주요성과」,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pp.56~57.

립되는 경향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높은 지대에 건립하는 입지적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역의 공간이 그 외적인 공간과 분리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찰이 들어선 장소는 종교적인 특별함이 더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중고기 습지를 매립한 황룡사에서도 감지되는데, 사역이 그 주변 유적보다 0.8~3m 이상 융기되어 있다(그림 10).⁴⁸⁾ 이는 황룡사를 주변지역보다 더 높게 성토하여 그 공간이 가지는 종교·정치(신궁)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동해안)교통로 상의 사찰

신라 왕경 중심부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월성이나 황룡사에서 출발한다면 분황사와 낭산 북쪽, 명활산(성), 천군동사지, 고선사지, 기림사를 지나 감은사로 이어지는 토함산 북쪽의 경로이다. 토함산의 남쪽에는 불국사, 장항리사지 등이 분포하는데, 이 경로는 월성에서 출발해 낭산 서편(사천왕사나 망덕사 남쪽)을 지나 현재의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구정동 인근에서 다시 불국사 가는 길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토함산 북쪽 경로

토함산 북쪽 경로는 경주시내에서 동해안으로 오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실성이 사금 4년(405),⁴⁹⁾ 눌지마립간 15년(431)⁵⁰⁾ 왜병이 동쪽 변경에 각각 침입해 명활성을 공격했을 때 이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5세기 전후로는 이미 경주시내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후에도 이 길은 왕경 중심부에서 동해안으로 오가는 길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 진흥왕 15년(554), 진평왕 15년(593)에 이뤄진 명활성 修·改築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왕경 동편 혹은 동해안으로 침투해 공격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⁵¹⁾ 한편 신라에서 이 경로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된 시기는 感恩寺가 완공되는 신문왕대(7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 문무왕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절을 조성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아들인 신문왕이 선왕을 위해 절을 완성하고 사찰 이름을 감은사라 명하였다.⁵²⁾ 그런데 문무왕대와는 달리 신문왕대 이후로는 감은사 주변이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지역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⁵³⁾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찰의 건립 목적을 바꾸고 그 명칭을 ‘感恩寺’로 명했

48) 이민형, 「신라 황룡사 대지의 구조와 축조기술의 계통」, 『신라문화유산연구』 3, 2019, pp.187~191; 김숙경, 「황룡사 건축과 남쪽광장」, 『경주 황룡사지 남쪽 광장』, 2020, pp.129~131.

4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條.

5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條.

51) 1988년 발견된 「명활산성작성비」에는 551년 11월~12월 축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2) 『三國遺事』卷2, 紀異2, 萬波息笛條.

다는 점이다. 즉, ‘感恩寺’라는 寺名에는 문무왕대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건립한 ‘四天王寺’와 같은 호국의 상징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찰 조성 이후에도 군사적인 성격보다는 원찰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듯하다. 신문왕을 비롯해 해공왕(776),⁵⁴⁾ 경문왕(864)⁵⁵⁾ 등은 의례[望海]를 위해 왕궁을 떠나 동해 감은사에 행차한다. 한편 해공왕과 경문왕은 단정할 수 없으나 신문왕은 감은사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왜구의 침투경로 상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기도 한 명활성이 7세기 중반까지 운영되다가 7세기 후반에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다.⁵⁶⁾ 이러한 몇 가지 정황들은 잦은 왜구의 침략으로 긴장된 상황에서는 쉽게 이뤄지기 힘든 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⁷⁾

『三國遺事』紀異 萬波息笛條에는 신문왕대 동해안 행차에 대한 여러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문왕은 감은사에서 留宿을 했고 기림사 서쪽 계곡을 지나 왕궁으로 돌아왔으며 그 교통수단은 수레[駕]였다.⁵⁸⁾ 따라서 신문왕대의 왕경 중심부와 동해안을 오가는 주요통로는 오늘날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길은 오늘날 보문호, 덕동호를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토함산(반호봉)과 무장산 사이의 계곡을 지나 추령터널(혹은 황룡계곡) 일대에서 북쪽계곡을 따라 습月山으로 북상하다가 다시 완만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기림사까지 이어지는 경로이다(그림 11).⁵⁹⁾ 특히 이 길은 보문호와 덕동호가 생기기 전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확인되고 18세기 작성된 『海東地圖』(慶州府)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되었을 것이다(그림 12).

신문왕은 동해안에 행차했을 때 감은사에서 留宿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당시 감은사는 왕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 사찰의 ‘院’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이 경로가 하루 만에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문왕이 감은사에서 숙박을 했다는 점과 감은사에서 기림사 서편 계곡까지의 거리가 반나절 거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해안에서 왕경 중심부인 월성까지는 하루 만에 쉽게 오가는 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왕 이후 해공왕, 경문왕 등이 동해안까지 직접 찾아와 망제를 드렸다. 즉, 감은사에 숙박을 할 수 있는 留宿處가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으로의 행차가

53) 류환성, 「경주 명활성의 발굴성과와 향후과제」, 『韓國城郭學會 初代監査 沈正輔教授 退任紀念論叢』, 2014, p.176.

5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十二年條

55)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四年條

56) 류환성, 앞의 논문, 2014, pp.174~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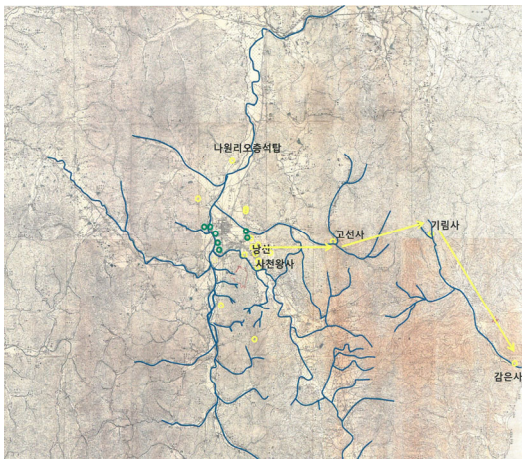
57) 소지왕 22년(500) 이후 왜의 침입 관련 기사가 『三國史記』新羅本紀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과 진평왕 5년(583)에 船府署가 설치된 후 왕경에서 동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왜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이 되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이근직, 앞의 논문, 2010, p.118 참조).

58) 『三國遺事』卷2, 紀異2, 萬波息笛條

59) 추령터널 가기 전 황룡계곡에서 오늘날 황룡사 인근 계곡으로 올라가 함월산 능선과 만나는 길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길에는 신라시대 절터인 황룡곡 절터가 있어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록에는 신문왕이 기림사 서쪽 계곡에서 점심 식사(晝飮)를 한 것으로 전하는데 이 역시 ‘院’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이 경로 상에 분포한 사찰은 대부분 실제 교통로 상에 입지하고, 감은사, 기림사, 고선사는 일정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따라서 이 사찰들의 여러 역할 중에는 왕경 중심에서 동해안으로 오가는 행렬이나 사람에게 휴식, 식사, 나아가 숙박 등을 제공하는 ‘院’의 기능과 역할이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⁶⁰⁾

[그림 11] 왕경 중심부-동해안 경로(7세기 후반)



[그림 12] 18세기 해동지도 교통로



(2) 토함산 남쪽 경로

토함산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성될 무렵 왕경 중심부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새로운 경로가 생긴다. 이 길은 낭산 동남쪽(사천왕사·망덕사 앞길)을 지나 토함산 남쪽의 장항리사지를 거쳐 감은사에 이르는 루트이다. 이 경로 상에는 왕릉급 무덤이 사찰과 함께 분포한다. 낭산 정상부에 선덕여왕릉을 시작해 전)신문왕릉, 전)효공왕릉, 전)효소왕릉, 성덕왕릉, 구정동방형분, 원성왕릉 등이 일정거리마다 위치한다. 이 무덤들의 피장자를 모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선덕여왕릉(647), 성덕왕릉(737), 원성왕릉(798) 정도는 학계에서도 피장자와 무덤이 일치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이 길에는 사천왕사와 망덕사를 비롯해 전)사자사지, 이거사지 등의 사찰이 있으며, 이어서 토함산 쪽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8세기 중엽), 장항리사지(8세기 중엽~후반) 등이 분포한다([그림 13]).

이러한 사찰과 고분의 분포 현황은 신라 왕경 연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말해준다. 특히 분포하는 유적의 조성연대를 고려한다면 이 경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성덕왕 때(702~737)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경덕왕 때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성된 후 이 경로는 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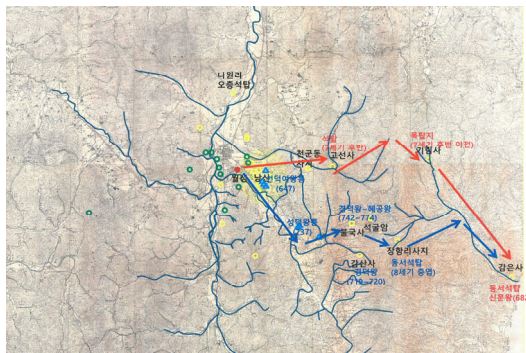
60) 이러한 사찰의 역할이 이후 고려시대 사찰 ‘院’의 기능으로 확대·전승되었는지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즉 7세기 후반에는 사천왕사, 망덕사, 전)황복사 등 왕실과 관련된 주요 불사와, 신문왕릉, 효소왕릉 등의 조영이 낭산 주변에서 행해졌고, 8세기 전반에는 왕실 관련 사업이 토함산 일원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⁶¹⁾ 위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성덕왕대 전후로 왕경 사찰의 조성은 낭산 일원에서 토함산 일원까지 점차 확장되었고, 이 경로는 8세기 중엽 왕경 중심부와 동해안을 오가는데 충분히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림 14]). 낭산 서남쪽에서 시작한 이 길은 동해안으로 가는 경로와 울산만으로 가는 경로로 각각 나뉘는데, 각 경로를 따라 신라 중대~하대 왕릉과 사찰이 본격적으로 들어선다. 따라서 이러한 사찰의 분포는 결국 신라 중고기 서천 주변에서 시작해 6세기 중엽 월성 주변, 7세기 후반 낭산 일원과 토함산 북쪽(무장산, 함월산등), 8세기 중엽 형제산과 토함산 남쪽까지 왕경의 사찰이 동편으로 확장되어가는 추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장항리사지 전경



[그림 14] 왕경 중심부-동해안 경로(붉은색/7세기 후반, 파란색/8세기 중엽)



3. 3기 : 8세기 후반 ~ 1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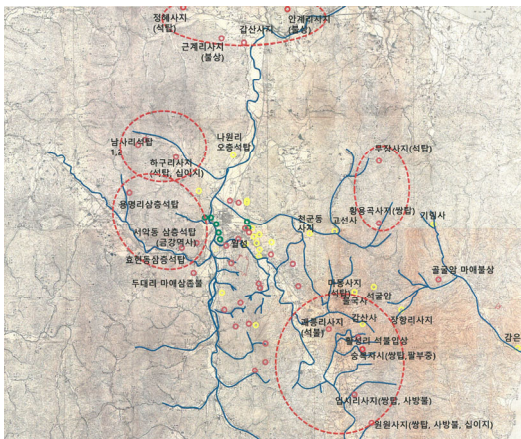
신라 중고기 사찰은 대부분 현재 경주 분지 내에 입지한다. 신라 중대 사찰은 낭산 주변을 시작으로 주로 그 동쪽과 남쪽으로 이어져 조성되었다. 신라 하대가 되면 사찰의 분포는 오늘날 경주지역 외곽으로 보다 확장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 시기에는 경주 분지 내 기존의 사찰이 중창되거나 소규모 사찰이 새롭게 들어선 예도 확인할 수 있다. 8세기 후반 이후 왕경 사찰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겠다.

61) 최선아, 「효(孝) 실천으로서의 불교미술-석굴암, 불국사 창건 목적과 관련하여-」, 『신라문화』 54, 2019, pp.24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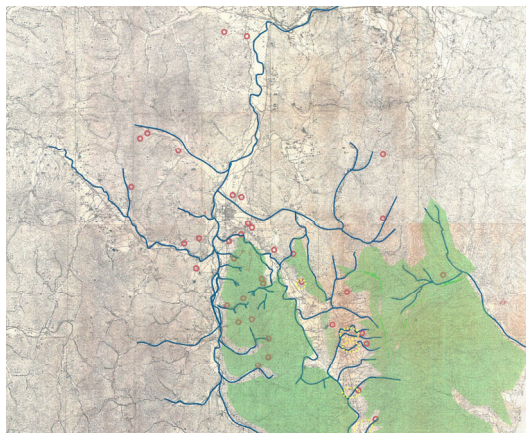
1) 왕경 외곽 사찰

제3기에서 조성된 사찰의 입지를 살펴보면 주로 곡간이나 하천을 따라 사찰이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북천과 인접해 전)호원사지가 위치하고, 동천동 시가지 안쪽에는 동천동사지(석탑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경주시 북단의 안강읍과 강동면에는 갑산사지, 전)정혜사지, 근계리사지, 안계리사지 등의 사찰이 형산강과 칠평천을 따라 입지한다. 형산강의 지류하천인 소현천을 따라 오늘날 현곡면 일대에는 하구리사지(현 구산서원 일원)와 남사리삼층석탑1·2 등이 있다. 즉, 제2기에는 현곡면에 위치한 나원리사지(나원리 오층석탑)가 왕경 중심부에서 북단의 기준이 되었다면,⁶²⁾ 제3기에는 그 북쪽과 서쪽으로 사찰의 분포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5).

[그림 15] 신라 하대 사찰 분포 현황



[그림 16] 울산방향 분포 사찰 및 취락형성 분포



경주 분지 남쪽으로는 7번국도 상에 이어진 사찰 일군이 주목된다. 낭산 남쪽에 전)사자사지(석탑), 이거사지(석탑)가 위치하며, 오늘날 울산 쪽으로 영지석불, 승복사지, 활성리 석불입상, 입실리사지, 원원사지 등이 있다. 앞서 이 경로는 제2기, 특히 성덕·경덕왕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는데, 제3기에도 이 길을 따라 여러 사찰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이 입지한 장소는 대체적으로 구릉이나 야산의 말단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중대 사찰에서 보였던 특징이 그대로 이어진다. 한편 해당사찰이 입지한 곳 아래에는 오늘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말방리의 승복사, 활성리 석조불입상, 입실리의 입실리사지(쌍탑지), 모화리의 원원사 등이 되겠다. 이러한 취락이 근래 일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자연취락이 형성된 곳에 사찰이 입지하고

62) 나원리 사지를 왕실이나 국가에서 건립한 사찰로 이해하고, 나아가 신문왕 5년(685)에 완공한 ‘奉聖寺’로 추정하기도 한다(윤선태,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3, 2002, pp.88~92. 참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16).⁶³⁾ 한편 이 사찰들의 주기능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감산사, 승복사, 전)원원사 등은 왕실이나 귀족의 원찰, 陵寺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⁶⁴⁾ 다만 경로를 따라 일정거리마다 취락과 사찰이 함께 입지하는 것을 참고했을 때, 앞서 신라 중대 사찰에서 보였던 ‘院’의 역할도 일정부분 했었는지 추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주 분지 동쪽에는 제2기에서 살펴본 동해안 이동 경로 주변에 황용(靑)사지와 무장사지 등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황용사지는 왕경 중심부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경로 상에 위치하는데, 특히 덕동을 지나 황용계곡을 따라가면 함월산 능선을 만날 수 있어 기림사, 나아가 감은사로 이어지는 경로 상에 위치한다. 18세기 그려진 「嶺南地圖」에도 황용사와 기림사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인된다. 최근 이 절터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데 비교적 좁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당, 동서삼층석탑, (추정)강당, 회랑 등 통일신라 정형의 가람구조가 확인되어, 신라 당시에는 상당한 격을 갖춘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장사는 『三國遺事』에 따르면 원성왕의 아버지인 효양(명덕대왕으로 추봉)이 숙부 파진찬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의 명칭은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에 병기와 투구를 골짜기 속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⁵⁾

경주 분지 서쪽으로는 서악동과 그 서쪽의 건천읍 일대에 비교적 큰 사찰이 분포한다. 서악동삼층석탑, 효현동삼층석탑, 용명리삼층석탑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석탑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가람 구조와 사역의 지형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석탑의 위치를 통해 본다면 모두 야산 말단부에 사찰이 입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 남산을 살펴보면, 앞선 제1·2기에는 남산에 많은 불적이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장창곡 미륵삼존불, 배리삼존불, 칠불암 마애삼존불, 삼릉 입곡 불상 등의 불교유적 정도가 교통이나 이동의 거점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제3기에는 남산 계곡 곳곳에 소규모 불적이 산발적으로 조성되는데, 그 중 창림사지 서편사지(석탑)나 전)북명사지(석탑) 등은 앞선 시기 사찰과 유사하게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타 산중턱이나 계곡에 들어선 여러 불적들은 왕경 내 사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 별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⁶⁶⁾

63) 이러한 자연취락이 신라 당시 坊里의 형태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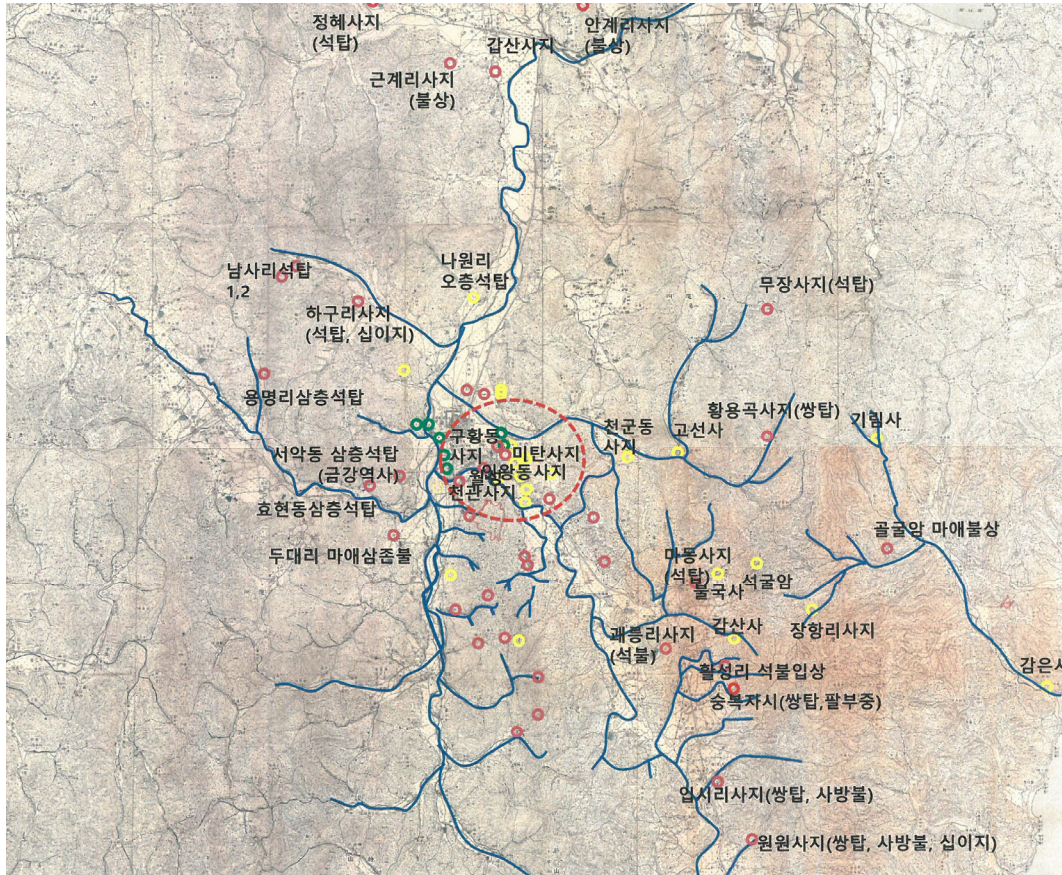
64) 『三國遺事』에 따르면 遠源寺는 안혜 등 네 명의 대덕이 김유신, 김의원, 김술종과 함께 발원한 절로 기록된다. 하지만 이 사찰의 위치가 오늘날 알려진 원원사지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三國遺事』卷5, 神呪6, 明朗神印, “又新羅京城東南二十餘里有遠源寺 謬傳安惠等四大德與金庾信·金義元·金述宗等同願所創也”).

65) 『三國遺事』卷3, 塔像4, 鑿藏寺彌陀殿條.

66)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2) 왕경 중심부 사찰

[그림 17] 신라 하대 왕경중심부 사찰 조성 현황(붉은색 점선)



제3기 왕경 중심부에 조성된 사찰을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시기 왕경 중심부에도 극히 일부지만 사찰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황룡사 서편사지(동서석탑), 미탄사지, 인왕동사지(동서석탑), 천관사지 등이 주목된다(그림 18). 황룡사 서편 사찰과 미탄사는 황룡사를 기준으로 서쪽과 남쪽에 위치하여 신라 왕경의 중심지에 각각 자리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주변은 6세기 중엽 습지 매립을 통해 토지 개간이 이뤄지고, 이후 도로를 갖춘 생활거주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최근 미탄사지 발굴에서는 사역 동쪽에서 남북의 대형배수로와 담장열이 사역 범위 전체에 걸쳐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찰 건립 이전 왕경의 방리구획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⁶⁷⁾ 그런데 사역 범위 내에서는

67) 불교문화재연구소, 『미탄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II』, 2016, pp.11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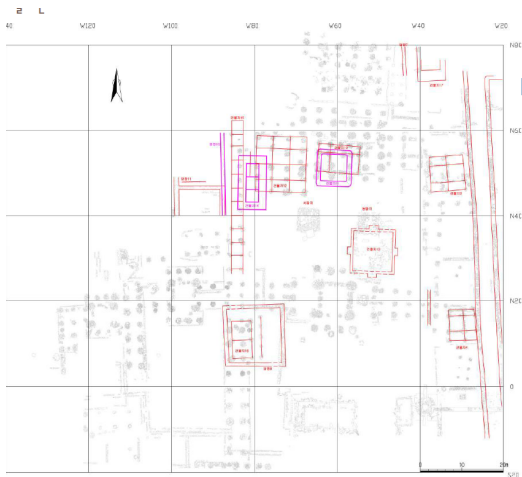
사찰 이전의 별다른 건축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해당지역은 미탄사가 창건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⁶⁸⁾ 현존하는 석탑양식을 고려했을 때 이 사찰의 창건 시기는 8세기 후반 이상 올라갈 수 없다.⁶⁹⁾ 따라서 미탄사가 들어선 장소는 황룡사가 건립되고 왕경의 도시 시설이 형성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空地로 남았던 곳이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왕경 중심부의 도시 개발은 특정시기에 급격히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경의 중심부는 6세기 중엽 기본적인 도로망이 먼저 구축되면서 도시 구획이 이뤄졌고, 점차적으로 방 내부에 필요한 시설물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⁰⁾

월성 남쪽에 입지하는 인왕동 사찰과 천관사는 기존에 있던 시설 위에 새롭게 사찰이 들어선 경우이다. 먼저 인왕동 사지에서는 기단에 팔부중이 조각된 동·서 삼층석탑이 발굴되었다. 이 석탑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찰의 창건은 8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¹⁾ 다만 석탑과 관련한 사찰 유구층 아래서 적어도 두 시기(통일신라층, 삼국시대층) 이상 중복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석탑 조성 이전 이 곳에 특정한 건축시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림 18). 하층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왕경의 주요사찰과 같은 정형화된 가람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9).

[그림 18] 경주 인왕동사지 후대유구(쌍탑)



[그림 19] 경주 인왕동사지 선대 유구



68) 13Tr 토층조사 결과 문화층은 II~III층(56.2~55.7)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기반토에서는 인화문 소병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6, p.24 참조).

69) 국립경주박물관, 『昧吞寺址』, 2007 ;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6, p.116.

70) 이상준, 앞의 논문, 2019, p.15.

7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3, pp.466~472.

천관사는 최근 복원된 팔각삼층석탑을 기준으로 한다면 8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사찰로 추정된다.⁷²⁾ 그러나 천관사지에서도 인왕동사지와 마찬가지로 주요건물보다 선대에 해당하는 유구(보고서 기준 건물지⁴⁾)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에서 삼국시대 단판연화문 수막새나 삼국시대 토기 등이 다수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천관사도 석탑 조성 이전에 특정시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천관사의 경우는 7세기 중엽 창건된 후, 8세기 말~9세기경 기존 사역 내 석탑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대대적으로 중창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어 인왕동사지의 선대유구와는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다.⁷³⁾

IV. 사찰 분포로 본 왕경의 형성과정

신라 중고기 사찰의 분포는 당시 경주 분지의 고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먼저 조성된 흥륜사를 비롯해 서천 동안에 분포하는 중고기 사찰은 대부분 구하도나 습지를 피해 미고지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마립간기 경주 분지 내 적석목곽묘가 용천천이나 습지를 피해 축조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6세기 초까지 신라 왕경의 중요시설은 자연재해가 적고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⁷⁴⁾

진흥왕 14년(553) 월성 동쪽에 新宮을 지으려고 시도했다. 이때의 신궁은 단순히 월성에 더해지는 의미보다는 지리적 한계가 있는 월성을 극복하고 대신하기 위한 시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진흥왕은 신궁 건설을 통해 왕경의 새로운 구도를 개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월성 동북쪽에 습지로 남아 있던 넓은 공간을 신궁 조성의 대상 부지로 선택했고, 이곳을 매립하고 개간했다. 결국에는 신궁을 짓지 못하고 사찰, 즉 황룡사로 고쳐짓게 되었지만 분명 진흥왕의 신궁 건설은 왕경의 대대적인 개발을 염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황룡사 조성 후 왕경의 도시 기반시설과 권위건축물은 월성과 황룡사 주변에 집중되었고, 이곳에 천주사, 분황사와 같은 국가사찰도 조성되었다.⁷⁶⁾ 이후 왕경의 개발은 황룡사 동편인 낭산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7세기 전반까지 낭산은 왕경 중심부에 편입되지 않은 듯하다.⁷⁷⁾ 7세기 중엽 선덕여왕릉이 입지하면서 낭산에 대한 개발이

7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04, p.261.

73) 이근직, 『慶州 天官寺址 小考』, 『경주사학』 20, 2001, p.90.

74) 6세기 초까지 신라 왕경의 중요시설은 월성 서편의 미고지 지대나 낭산 북쪽의 오늘날 탑동 일대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75) 주보돈, 『황룡사 창건과 신라 중고기 황룡사의 위상』, 『황룡사지 발굴조사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p.10.

76) 흥륜사, 영흥사, 영묘사와 황룡사·분황사의 위치가 중고기 도성 중심지의 동서 경계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여호규, 『신라 도성의 공간구성과 왕경제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 18, 2002, p.52 참조).

점차 이뤄졌고, 사천왕사(679년), 황복사(구황동 삼층석탑/692년 조성) 등의 중요사찰이 조성될 무렵 낭산은 왕경 중심부에 완전히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⁸⁾

신라중대 전반 왕경의 사찰은 낭산 일원에서 가장 활발히 조성되었다. 이 시기 낭산은 왕경의 내외의 경계를 짓는 장소로 인정되며, 이 경계지점에 호국사찰의 상징인 사천왕사가 조성된 것은 매우 의도적인 입지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찰 분포의 변화는 7세기 후반 문무왕대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왕경의 개편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682년 감은사 조성 이후 왕경과 동해안을 오가는 경로가 활성화 되는데, 이 경로는 낭산 북쪽을 지나 명활산, 천군동사지, 고선사, 기림사로 이어져 동해안 감은사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찰들은 왕경과 동해안을 오가는 교통로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각 사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신라중대 후반에도 여러 사찰이 새롭게 조성되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토함산의 불국사일 것이다. 앞선 시기 낭산 주변으로 분포하던 사찰이 토함산 일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성덕왕 21년(722) 축성된 毛伐郡城(722년), 즉 관문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⁹⁾ 관문성 축성 이후 오늘날 경주 외동일대까지 안전한 방어체제가 구축되었고, 이에 왕경의 중요시설은 토함산 일원까지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경로에는 신라 중대 후반부터 여러 사찰과 함께 왕릉이 조성된다. 한편 이 무렵에는 동해안으로 오가는 또 하나의 길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토함산 남록을 통한 길인데, 불국사(740년 경)와 장항리사지(8세기 중엽)와 같은 사찰이 교통로상의 중요한 자리에 입지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20]).

신라하대에는 왕경 전역에 중·소규모의 사찰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본고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주변 산지에 들어선 소규모 불교 유적(마애불 등)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하대가 되면 지방 호족의 후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많은 불사가 있었다고 하는 인식과는

[그림 20] 왕경 사찰 시기별 분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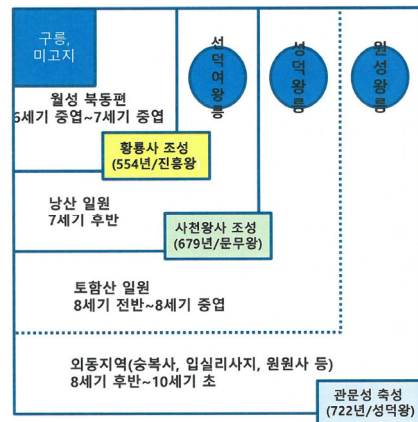
77) 여호규는 중고기까지 낭산 일대는 도성의 외곽지역으로서 방리구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여호규, 앞의 논문, 2002, pp.47~48 참조). 이상준 역시 ‘京外埋葬’의 관점에서 선덕여왕의 사망시점인 7세기 중반까지 낭산 남반부는 왕경 내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이상준, 앞의 논문, 2019, p.17 참조).

78) 여호규, 앞의 논문, 2002, pp.67~68.

7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二十一年, “築毛伐郡城以遮日本賊路”

차이가 있다. 경주지역 신라 사찰의 분포 현상을 참고한다면 신라 하대에도 왕경의 외곽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무왕대 이어 애장왕 7년(806)에 사찰 창건과 불사에 대한禁畵을 제정한 것은 신라 하대 들어서 그만큼 많은 사찰이 새롭게 건립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⁰⁾ 신라 중고기나 중대에는 비교적 특정 지역(서천 주변, 월성주변, 낭산 주변, 왕경-토함산 일원)을 중심으로 사찰이 분포했었다. 또한 신라 중대까지 왕경 내 주요사찰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북단은 현곡면의 나원리사지(7세기 후반/북단)이고 가장 남단은 토함산의 불국사(8세기 중엽/남단)로 파악할 수 있다.⁸¹⁾ 그런데 신라 하대에는 사찰의 분포가 왕경 외곽으로 보다 더 넓게 퍼져있다. 즉 왕경 중심부를 기준으로 사방에 모두 사찰이 들어서는 변화를 보인다. 왕경 북쪽은 오늘날 현곡면을 넘어 안강읍, 강동면 일대까지 사찰이 분포하고, 동남쪽은 외동읍, 남쪽은 내남면 일원까지 사찰이 건립되었다. 동쪽에는 주로 토함산, 운제산, 함월산 등 동해안 경로 상에 사찰이 추가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는 서천을 지나 오늘날 서악동, 효현동, 율동, 진천 일대까지 사찰이 분포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찰 분포 양상은 결국 왕경의 개발과 무관하지 않으며,⁸²⁾ 아울러 왕경의 형성과 범위를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21).⁸³⁾

[그림 21] 신라왕경 형성과정 모식도(동남쪽)



V. 맺음말

신라 왕경은 내외를 구분하는 외성이 없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라 당대에는 자연 지형이나 환경 등이 그 구분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고, 아울러 사찰, 왕릉, 산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등은 그 경계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신라 사찰의 시기별 분포 변화는 왕경의 형

80)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七年, “禁新創佛寺唯許修葺又禁以錦繡爲佛事金銀爲器用宜令所司普告施行”

81) 719년 경 조성된 감산사지가 불국사보다 남쪽에 입지하고 있으나, 거리상으로 토함산 일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무왕대에 내려진 금령으로 왕경 중심부에는 귀족의 원찰이 쉽게 건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82) 신라 중대이후에는 경주 외곽지역을 ‘王京’과 구분되는 ‘王畿’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 아울러 중대 이후 왕경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외곽지역은 ‘王畿’로 재편되었다고 보았다(여호규, 앞의 논문, 2002, p.73).

83) 전택재, 2005, 앞의 논문, p.196.

성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신라 왕경 사찰의 현황을 현존하는 물질자료(탑상)를 위주로 검토했고, 이에 시기별 분포 변화와 입지적 특징 등을 함께 고찰했다.

중고기 왕경의 중요사찰은 대부분 오늘날 경주 분지 내 입지했다. 이 시기 사찰의 입지 선정은 당시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서천 동안의 사찰은 대부분 자연재해나 물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들어섰다. 반면 월성 주변, 특히 황룡사는 치수나 매립을 통해 토지를 개간하고 그 자리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6세기 중엽 왕경의 첫 번째 개발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황룡사 조성 이후 왕경의 권위건축물과 주요도시기반시설은 월성과 황룡사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7세기 후반 문무왕의 새로운 왕경 구조 개편에 따라 낭산이 왕경의 범위에 완전히 편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문무왕 19년(679) 조성된 사천왕사의 위치는 왕경 내외를 구분 짓는 경계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덕왕대 축성된 관문성은 울산만으로 침입하는 왜구로부터 방어선이 되었다. 관문성이 설치된 후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낭산 주변에 조성되었던 사찰과 왕릉이 낭산 남쪽으로 토함산 일대까지 분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8세기 전반 왕경의 경계가 낭산에서 그보다 남쪽으로 보다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신라시대 왕경 사찰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 경주시 외곽지역까지 다수의 사찰이 입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찰 수의 증가는 왕실, 귀족 등의 능사나 원찰의 증가로 추정된다. 한편 앞선 시기에는 주로 거점지역 중심으로 사찰이 조성되었다면 이 시기는 왕경 외곽 전역에 중소 규모의 사찰이 들어선다. 이러한 사찰 분포의 배경에는 왕경 외곽지역에 고허성(626년), 부산성(663년), 북형산성(673년), 관문성(722년)과 같은 방어체계가 이미 구축된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왕경의 중심부는 이미 도시화가 진전되어 포화 상태였고, 특히 애장왕 7년(806)의 금령 이후 왕경 중심부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 왕경의 사찰은 신라 중고기 서천주변에서 시작해, 6세기 중엽 월성 주변, 7세기 후반 낭산일원과 토함산 북쪽, 8세기 중엽 형제산, 토함산 남쪽, 8세기 후반 이후에는 오늘날 경주시 외곽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찰의 위치나 분포만으로 왕경의 범위나 발전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찰의 분포양상과 입지는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순서, 그리고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2. 단행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黃壽永, 『韓國金石文遺文』, 일지사, 1976.

3. 연구논문

강봉원,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신라문화』 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김동하,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불교유적조사와 경주고적보존회의 『慶州古蹟及遺物調書』,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김동하,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주요성과」,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김숙경, 「황룡사 건축과 남쪽광장」, 『경주 황룡사지 남쪽 광장』, 2020.

김재홍,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 7, 가락국사적개발원, 1995.

김지현, 「경주 구황동 탑지의 석탑재 고찰」, 『불교미술사학』 20, 불교미술사학회, 2015.

김창호, 「신라 흥륜사의 가람배치 문제」,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류환성, 「경주 명활성의 발굴성과와 향후과제」, 『韓國城郭學會 初代監査 沈正輔教授 退任紀念論叢』, 2014.

李東柱, 『新羅 統一 期 王京의 構造와 運營』,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박방룡, 「新羅 王京의 寺刹造營」,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9.
- 심현철, 「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문화재』 5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 여호규, 「신라 도성의 공간구성과 왕경제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 18, 서울학연구소, 2002.
- 윤선태,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 윤순옥·황상일, 「경주 및 천북 지역의 선상지 지형발달」, 『대한지리학회지』 39-1, 대한지리학회, 2004.
- 이근직, 「慶州 天官寺址 小考」, 『경주사학』 20, 경주사학회, 2001.
- 이근직,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 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동악미술사학』 11, 동악미술사학회, 2010.
- 이기봉, 「중고기 신라 왕경에서 불교의 공인과 도시의 변화」,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 이민형, 「신라 황룡사 대지의 구조와 축조기술의 계통」,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 이상준, 「신라왕경의 개발과정과 고고학적 경계」, 『신라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 전덕재, 「신라 왕경의 공간구성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연구회, 2005.
- 주보돈, 「신라 狼山의 歷史性」, 『신라문화』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 주보돈, 「황룡사 창건과 신라 중고기 황룡사의 위상」, 『황룡사자 발굴조사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 최선아, 「효(孝) 실천으로서의 불교미술-석굴암, 불국사 창건 목적과 관련하여-」, 『신라문화』 5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9.

4. 보고서

- 경주문화재연구소, 『新羅王京 S1E1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2.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사정동 284-10번지 흥륜사 요사채 건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201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3.
- 국립경주박물관, 『味吞寺址』,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14, 1981.
- 경주문화재연구소,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04.
- 문화재관리국,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1984.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대구·경북 경주시 사지 분포현황』, 2012.

불교문화재연구소, 『미탄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II』, 2016.

서라벌문화재연구원,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2차)』 발굴조사약보고서,
2018.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 傳皇福寺址 I』,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 논문투고일 : 2020. 10. 26 ■ 심사완료일 : 2020. 11. 23 ■ 게재확정일 : 2020. 11. 24

■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Capital of Silla through Buddhist Temple Distributions

Kim, Dong-ha*

This thesis re-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Buddhist temples in the capital of Silla.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distribution subject to the historical site where historical artifacts remained, such as pagodas, Buddhist statues, and stonework. Besides,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distribution changes of the temples and their locational features over time. This study aimed to reflect on the meanings of the distribution of temples in the capital of Silla by examining the formation of the capital according to the temples' construction.

The capital's demarcation was not clear as they did not have an outer castle wall to divide the inner and outer capital city. Natural landform or environment played an essential role in dividing the capital in the Silla era.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such as Buddhist temples, the Royal Tombs, and fortress, were also used as demarcation.

The temples of the capital of Silla were expanded step by step. They were built around the West River in the early sixth century, followed by around Wolseong in the mid-sixth century, Nangsan area and the north valley of Toham Mountain in the late seventh century, Hyeongjae Mountain and Toham Mountain in the mid-eighth century, and the outer area of Gyeongju today after the late eight centuries. The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such temples can be an essential indicator of the formation of the Silla's capital and its direction.

Keyword: Silla, The capital, temple, distribution, location

*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